

통시적 고찰과 함께 살펴본 구약 속 ‘자살’에 대한 신학적 평가

이금재 (목원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자살’에 관한 통시적 고찰

1. 고대 근동 지혜 문학 속 ‘자살’
2. 고대 서구 철학에서 바라본 ‘자살’
3.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에서 바라본 ‘자살’
4. 19세기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바라본 ‘자살’

III. 구약의 죽음 이해와 자살의 신학적 위치

1. 구약의 죽음 이해
2. 자살 용어의 부재

IV. 구약의 자살 사례 연구와 신학적 의미

1. 수치스러운 죽음 회피: 사울과 그의 병기 든 자
2.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히도벨
3. 사명 완수와 목표 지향적인 자기 파괴: 삼손
4. 악행에 대한 YHWH의 심판과 자기 파괴: 아비멜렉과 시므리

V. 나가는 말

• ABSTRACT •

A Theological Evaluation of ‘Suicide’ in the Old Testament
with a Diachronic Consideration

Assistant Prof., Lee, Keung Jae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reexamines the traditional perception of the Korean church, which has condemned “suicide” within a doctrinal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Old Testament studies, against the backdrop of Korean society, characterized by a rapidly rising suicide rate.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diachronic examination ranging from ancient Near Eastern cultures to Greek philosophy,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as well as Émile Durkheim’s sociolog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six cases of suicide in the Old Testament through exegetical work.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Old Testament objectively narrates incidents of suicide without using a specific term to refer to it, treating it not as a mere moral failure but as a “social death” resulting from a loss of identity and as a “meaningful even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most of those who ended their lives by suicide were still laid to rest “with their ancestors” as members of their kinship community confirms that their suicides were not viewed negatively. Ultimately, the modern church’s condemnation of suicide is likely a product of church history established after Augustine.

Key words: Suicide, Identity, Good Death, Bad Death, Social Death, Emile Durkheim

I. 들어가는 말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스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시 88:3-4).”

시편 150편 중 ‘가장 어둡고 우울하며, 가장 희망을 찾을 수 없으며, 찬양과 희망의 가능성이 차단된 유일한 시편’으로 평가받는 시편 88편의 이러한 고백은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이 마주한 ‘절대적 고독’이라는 현실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편에서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명의 끝이 아니라, ‘기력상실’(4, 15절), ‘사회적 고립’(8절)과 ‘관계의 단절’(18절), 무엇보다 ‘YHWH로부터의 단절’(9-14절)이 지배하는 현재의 ‘절망 상황’과 ‘절대적 고독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자살을 고민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상태의 삶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빠진 신앙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나에게 그 어떠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종교적 절망 상태가 추가된다면, 이들이 신앙의 힘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러한 시편 속 죽음에 대한 고민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절규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비극적인 지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2003년 이후(2017년 제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와 연령표준화 자살률 기준 OECD 평균(10.8명) 2.4배(26.2명)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 자료를 토대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추정하는 2025년도 자살사망자 잠정치는 13,774명으로, 하루 평균 약 38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있다.¹⁾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에 게시된

1) 일반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가 10%로 본다. 결국,

‘통계청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관한 최신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암(24.5%)에서 자살(26%)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 분위기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²⁾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개신교 공동체 내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2024년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11%가 지난 2주 사이 ‘그냥 자살해 버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³⁾ 이는 일반 국민의 수치와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전히 ‘자살’을 ‘정신적 나약함’, ‘종교적인 죄’, ‘불신앙’, ‘도덕적 일탈’ 또는 ‘정신적 질병’과 같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정죄하기에 급급하다. 또한 ‘자살’과 연관되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자살 시도자의 가족과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가족이 겪는 심리적 외상과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낙인을 보듬는 것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제 교회에서도 자살을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 스스로가 포기했다고 단죄만 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나는 지금 하나님조차 만날 수 없는 스올의 문턱까지 다다랐다’라고 탄식하는 이들이 최후의 탈출구로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논할 시기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자살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적 정죄를 넘어, 구역 안에서 확인할

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약 380명 정도임을 알 수 있다.

- 2) 또한 ‘자살’을 선택한 주요 원인으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39.8%로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2023년도 “한국의 자살 추이와 대응” 보고서 내용 속 2021년 경찰청 변사자 통계의 동기별 자살 현황이 언급된 <https://kfsp-datazoom.or.kr/korea04.do#>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3)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보는 신앙 양극화 시대 2025년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 (서울: 규장, 2024), 82에서 일반 국민 설문 조사 결과인 ‘매우 그렇다(2%)’와 ‘어느 정도 그렇다(8.9%)’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 있는 자살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살을 죽음의 방법으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각 상황 상황마다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를 사례별로 연구하고자 한다.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7명 중 유다(마 27:5)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은 구약 속 아비멜렉(삿 9:54-55), 삼손(삿 16:30), 사울과 그의 무기 담당 병사(삼상 31:4-5), 아히도벨(삼하 17:23) 그리고 시므리(왕상 16:18) 6명의 인물이다.⁴⁾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자살’을 직접 표현하는 통일된 용어는 구약에서는 없다. 예를 들면, 삼손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자매’,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리고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와 같이 완전히 다르게 그들의 자살 과정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약 시대에는 자살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굳어진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II. ‘자살’에 관한 통시적 고찰

구약에서 바라본 ‘자살’에 관한 신학적 평가에 앞서, 고대 근동 문화부터, 고대 서구 철학,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통 그리고 19세기 말 ‘자살’에 관한 현대 사회학 연구의 기초를 닦은 뒤르켐(Emile Durkheim)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맥락 속에서 ‘자살’을 어떻게 이해

4) 이외에도 마카베오서에서 3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로 언급된다. 안티오쿠스 왕에 대항하여 벡트카리아 전투에서 유대인들을 구하고 용명(勇名)을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적장이 타고 있다고 생각한 코끼리를 칼로 찌르고 그 코끼리에 깔려 죽음을 맞이한 마카베오의 형제 ‘엘르아잘’(1마카 6:43-46). 유대인들이 겪은 불의를 생각하여 선의를 베풀었지만, 이러한 행위로 배신자로 몰려 곤경에 처하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셀류쿠스 왕조 시대의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비유대인 프톨레미 마크론(2마카 10:12-13), 그리고 개종을 강요받았지만, 유대교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유대인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라지스(2마카 14:41-46)이다.

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약 시대와 지금의 기독교 사이에 발행하는 ‘자살’에 대하여 어떠한 신학적 인식의 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고대 근동 지혜 문학 속 ‘자살’

이미 오래전부터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자살’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이자, 외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처와 같은 하나의 문학적 모티브의 역할을 감당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허무주의적 선택과 연관된 ‘자살’이다. 이러한 주제는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인물이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에 의해서 구원받는 과정을 묘사하는 주전 1000년경에 기록된 바빌로니아의 지혜 문학 작품 ‘주인과 종 사이의 비관적 대화(A Pessimistic Dialogue Between Master and Servant)’⁵⁾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한 주인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의 종이 찬성하는 이유를 대고, 반대로 주인이 마음을 바꾸어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종은 다시 그 반대 의견에 동조하는 인간 행위의 모순을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12단락(XII)에서 주인은 세상의 모든 행위가 모순적이고 허무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후, 종에게 ‘이제 무엇이 좋은가’라는 묻고 ‘나의 목과 너의 목을 꺾어 강물에 던지는 것이 좋다’라고 스스로 답하면서 무의미한 세상에서 죽음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문헌에서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언급된 자살에 대한 평가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무의미하고 모순적이며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고

5) Robert H. Pfeiffer, “A Pessimistic Dialogue Between Master and Servant,”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³), 437-438.

도 최종적인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집트 문화에서 ‘자살’은 실존적 해방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이집트 고왕조와 중왕조 사이 제1중간기에 기록된 ‘자살에 관한 논쟁(A Dispute over Suicide)’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질서가 무너진 제1중간기라는 고통스러운 현세를 견딜 수 없게 된 한 남자가 자신의 영혼이자 인격인 ‘바(Ba)’와 벌이는 대화 속에서 주인공은 고통스러운 현세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임을 제시하고 ‘바’를 설득한다. 작품의 결말에서 ‘바’는 주인공의 의지에 설득되어 ‘어떠한 운명이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함으로써 실제로 안식을 향한 여정에 동의했음을 보여준다.

2. 고대 서구 철학에서 바라본 ‘자살’

기독교 시대 이전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철학에서 바라보는 ‘자살’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과 자살에 대한 관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보여주며, 현대 사회의 자살 급증 현상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고대 철학은 다음의 몇 가지 개념들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시대였다. 예를 들면, 신(神)은 불가시적이고 초인간적인 영원한 힘으로 인간의 운명을 통제하시는 분으로 믿었으며, 기도, 의식(儀式)이나 제사, 예배를 통해서 신을 회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6) John A. Wilson, “A Dispute over Suicide,”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³), 405-407. 131행과 각주 21(407)에서는 죽음이 오는 주인공의 얼굴 앞에 도착했음을 말하며, ‘주인공과 바가 함께 집(=안식)으로 돌아갔다’는 154행과 ‘기록된 대로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왔다는 155행과 각주 27에서는 ‘바가 주인공의 자살이라는 생각에 설득되어, 주인공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고 글이 마무리 되기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신, 자연 그리고 우주의 생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주를 이룬 시기였기에 인간은 관심 밖 주제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관심을 우주라는 외부세계에서 인간에 관심을 돌리는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적인 철학자였다. 그가 정의한 인간은 이성(理性)을 사용하여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자, 인간의 영혼은 도덕성을 기초로 신중성과 절제, 용기와 정의 등의 덕(德)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살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죄’로 이해되었다.⁷⁾ 이러한 이유에서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자기의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수인(囚人)이기 때문에,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였다.⁸⁾

플라톤 역시 ‘생명의 주권은 인간이 아닌 신에게 있으며, 인간은 신의 소유물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허락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적이었다.⁹⁾ ‘인간의 영혼이란 육체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육체와는 별개의 것이면서 육체의 파멸 후에도 죽지 않는다’는 이른바 ‘영원불멸론’¹⁰⁾을 역설한 플라톤은 초기에는 자살을 ‘스스로 영혼을 육체로부터 풀어주는 신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위’ 정도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후 플라톤은 『법률(Nomoi)』¹¹⁾에서는 자살을 매우

7) 최성환, 민현기, “철학적 문제로서의 죽음: 플라톤의 『파이돈』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1(2021), 56-57; 김현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에서 나타난 영혼 돌봄에 대한 고찰,” 『통섭인문학』 1(2022), 3, 5-6.

8) Platon, *Phaidon*, 전현상 역, 『파이돈』 (서울: 이제이북스, 2013), 39-40.

9)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직전 대화 내용을 담은 『파이돈(Phaidon)』에서 인간은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신의 허락 없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2b-c). 이에 관하여는 위의 책, 64-65을 참고하라.

10) 최성환, 민현기, “철학적 문제로서의 죽음: 플라톤의 『파이돈』을 중심으로,” 43-44.

11) Platon, *Nomoi*, 박종현 역, 『플라톤의 법률. 부록: 미노스·에피노미스』 (과주: 서광사, 2009), 664-665.

수치스러운 행위로 규정하면서 자살자를 묘비 없이 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제9권 873c-d).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독배처럼 국가나 법정의 판결로 죽임이 강제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지독한 불행이 닥친 경우 또는 극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치욕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자살도 ‘비겁한 짓’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¹²⁾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의 생명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도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살을 부정적이고 불의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신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의 자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전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살을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비겁한 사람이나 하는 일(제3권 7장 1116a 12-15)”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찢어 죽는 사람은 올바른 이치에 어긋나게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자(제5권 11장 1138a 10)”이자 “폴리스에 부정의를 행하는 사람(제5권 11장 1138a 13-14)”으로 비판하였다.¹³⁾ ‘내 생명의 주인이 국가이다’라는 그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살론 역시 ‘자살을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현대 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선택’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12) 그러나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다채로운 현대 사회의 환경과 정신적 한계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비난과 정죄보다는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제도적, 윤리적 그리고 종교적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3)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강상진·김재홍·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도서출판 길, 2011), 104, 198.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3. 유대교 및 초기 기독교에서 바라본 ‘자살’

시간이 흐를수록, 자살에 대한 판단은 고대 근동 문화 속 실존적 수용이나 서사적 중립성에서 벗어나, 엄격한 법적, 윤리적 그리고 교리적 금기로 굳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이는 생명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두려는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교리적 확립 과정에서 드러난다.

유대교의 미드라쉬와 할라카 법전은 원칙적으로 자살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창세기 9장 5절 상반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를 근거로 자살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명시한다. 이러한 신학적 전제와 함께 ‘자살’에 대한 유대교의 신학적, 윤리적 관점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애도와 정죄의 원칙에 따라 자살자에게는 사자(死者)에게 마땅한 애도가 거부되지만,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경멸 또는 비하의 말도 금지된다.¹⁴⁾ 이를 통해서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엄격함과 별개로 인간적인 신중함을 동시에 유지한다. 둘째, 심리적 원인(절망감, 무력감, 수치심, 죄책감, 외로움 등), 병리적 원인(조증과 우울증, 피해망상 등) 그리고 의학적 요인 등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자살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강제 개종 등) 또는 전쟁 중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마지막 저항으로 선택한 자살과는 엄격히 구분한다.¹⁵⁾ 셋째, (본 연구

14) Haim Hermann Cohn, “Suicide. In Jewish Law,” in *Encyclopaedia Judaica*, Vol 19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2007²), 296.

15) Louis Isaac Rabinowitz, “Suicide”, in *Encyclopaedia Judaica*, Vol 19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2007²), 295-296.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유대교 관점에서 ‘타낙’ 속 명백한 자살 사례는 삼손(삿 16:30), 사울과 그의 병기 든 자(삼상 31:4-5)

에서는 논하지 않지만) 현대적 개념의 ‘조력 자살’¹⁶⁾ 또는 ‘안락사’를 엄격히 금한다. 즉, 피해자(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동의하더라도 가해자(조력자)에게 살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비록 유대교의 정경 타낙(TaNaKh) 자체는 아비멜렉의 ‘조력 자살’에 대해서는 비난 없이 그의 죽음만 객관적으로 묘사하지만(삿 9:54-55), 이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한다.¹⁷⁾ 이는 생명권은 결코 인간의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대교의 자살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미드라쉬와 할라카 법전에서 출발하였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자살이 신학적 관점에서 금기시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도나투스파(Donatists) 사이의 논쟁이었다. 당시 도나투스파는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자살을 ‘참된 순교’로 미화하며 정당화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 기독교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고전적 의미의 ‘순교’와 박해를 피하거나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절벽 투신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통한 ‘자발적인 자

그리고 아히도벨(삼하 17:23)의 죽음뿐이다. 그중 삼손, 사울과 그의 병기 든 자 경우는 일반적인 자살과 구분되는 “suicide under mitigating circumstances”, 즉 ‘정황상 경감될 수 있는 자살’(295)로 인식한다.

- 16) ‘조력 자살’이라는 개념은 죽을 권리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으로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하나의 ‘안락사’ 형태를 지원한 ‘Dignity in life, dignity in death(삶 속의 존엄성, 죽음 속의 존엄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루트비히 미넬리(Ludwig Minelli)에 의해서 1998년 설립된 “Dignitas”(디그니타스)라는 스위스 단체의 설립과 함께 최근에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조력 자살’은 불법이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안락사 법안이 2018년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다. ‘자살’과 ‘조력 자살’에 관하여는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Alten Ägypten und Alten Orient* (Tübingen: Mohr Siebeck, 2017), 6을 참고할 수 있다.

- 17) 이에 관하여는 유경동, “안락사와 종교적 관점의 생명윤리,” 『한국신학논총』 114 (2019), 377-380을 참고하라.

살'을 엄격히 구별하였다.¹⁸⁾ 이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십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재해석하여 이 계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신을 죽이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살해하는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금하는 강력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¹⁹⁾

또한 그는 로마의 전통적 명예관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의 저서 『신의 도성』(De Civitate Dei) 제1권에서 성폭행을 당한 후 자살한 루크레티아(Lucretia)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당시 로마인들은 능욕당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루크레티아를 정절을 지킨 영웅이자 명예로운 여인으로 칭송하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녀가 죄 없는 피해자라는 사실에는 동의하면서도, 루크레티아가 스스로 판단하여 죄 없는 자신을 죽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살인죄였다고 주장하였다.²⁰⁾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와 같은 자살에 대한 정죄 및 금지는 이후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저서 『신학대전』 제2부의 제2권(Secunda Secundae), 제64문(Question 64)의 제5절(Article 5)에서 자살이 죄가 되는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규정했다. 첫째, 자살은 '자기애'와 자연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 '자기 보존의 자연법 위반'이다. 둘째,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의 일원인 인간이 자살을 선택한다면, 공동체에 상처를 입히고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 위반'이다. 셋째, 생명은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자 신의

18) Arthur J. Droge, "Suicide,"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I (New York: Doubleday, 1992), 225.231.

19) Augustine, *The City of God*, 조호연·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107-111; 비교 James T. Clemons,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uic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38.

20) Augustine, *The City of God*, 119-124.

소유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신의 고유 권한을 찬탈하는 중죄’이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중세 가톨릭 교회법에 반영되어, 자살을 ‘회개할 수 없는 대죄’로 분류하고 자살자의 교회식 장례를 거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종교적 금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통은 공통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방향 속에서 ‘자살’에 대한 신학적 인식을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살은 한 개인의 단순한 비극을 넘어 하나님의 권위나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거스르는 ‘나쁜 죽음’의 전형으로 신학적인 정죄를 받았다.

4. 19세기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이 바라본 ‘자살’

현대 사회학 연구의 기초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 에밀 뒤르켐은 자신의 고전적 저술 『자살론』²¹⁾을 통해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선택에 의한 비극이 아닌, 하나의 명백한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살을 ‘죄’나 ‘개인적 불행’으로만 보던 기존의 종교적 담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자살률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결속력 정도, 그리고 개인이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사회적 규제의 기제(機制)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사회적 통합(integration)과 규제(regulation)의 양상에 따라 자살의 유형을 세 가지로 체계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회적 통합의 결여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이다(제2부 제2장 참조). 두 번째 유형은 이와 대조적으로 개인보다

21) Elime Durkheim,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황보종우 역, 『자살론』 (파주: 청아출판사, 2008).

사회적 가치나 집단 의무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할 때 나타나는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로 자폭 테러와 같은 행위가 이 범주에 속한다(제2부 제4장 참조). 마지막 유형은 급격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나 규제가 느슨해진 상태 또는 개인을 구속하고 안정감을 제공해 주던 규범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아노미적²²⁾ 자살(anomic suicide)’이다(제2부 제5장 참조). 이러한 자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경제적 위기나 호황,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뒤르켐은 종교 집단의 성격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130여 년 전의 연구라는 분명한 시대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자살률이 가톨릭이나 유대교인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개신교 국가와 가톨릭 국가 사이 또는 동일 국가 내 종교 지형에 따라 개신교의 자살률은 가톨릭보다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높았다. 이에 뒤르켐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교리 자체보다는 ‘신앙생활 방식에 따른 집단적 응집력 차이’에서 찾았다.²³⁾ 즉, 강력한 위계질서와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여 강한 결속력을 갖는 가톨릭과 달리, 개인이 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자유로운 사유를 강조하는 개신교의 특성이 사회적 통합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유대교인의 낮은 자살률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대교는 소수 집단으로서 지닌 강력한 내부 응집력 덕분에 조사 대상 종교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였다.²⁴⁾ 이러한 뒤르켐의 자살에 관한 고찰은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일탈’이나 ‘정신적 나약함’이 아니라,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성과 유기적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22) 그가 말하는 ‘아노미(Anomie)’란 사회적 규범이 무너지거나 통제력을 상실하여 개인이 방향감을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23) Elime Durkheim, *Suicide*, 173-200.

24) 실제로 독일 프로이센주의 인구 100만 명당 자살자 수는 개신교가 265명인 데 반해, 가톨릭은 123명, 집단적 결속력이 가장 강했던 유대교는 105명에 불과하였다.

III. 구약의 죽음 이해와 자살의 신학적 위치

1. 구약의 죽음 이해

구약의 ‘자살’에 관한 연구에 앞서 구약이 바라보는 ‘죽음’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구약은 에녹(창 5:24)과 엘리야(왕하 2:11)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한계 내에서 죽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현상으로 이해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피조물인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창 3:19; 시 104:29; 욥 34:14-15 등).

구약에서 이러한 ‘죽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은 “누군가가 죽어서(מוֹת) 열조에게로 돌아갔다(אֶל-עֲמִים ... אִסָּף)”와 “조상들과 함께 눕다(שָׁכַב ... עִם-אֲבִית)”이다.²⁵⁾ 먼저, “누군가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다. 한글 성경에서 ‘돌아갔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모오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프(אָסַף)’의 수동태 니팔(נִפְלַג) 형태이다. ‘모이다’의 원뜻에 충실하게 이 구절을 읽는다면, ‘죽은 사람이 열조에게로 모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다.²⁶⁾ 죽음을 표현하는 이 문구 속에 중요한 신

25) 이외에도 두 표현의 혼합된 형태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아사프(אֶל-אֲבִית) ... אִסָּף’은 두 번(삿 2:10; 왕하 22:20/대하 34:28) 언급되었다.

26) 이 표현 속에는 ‘누가’ 죽음 사람들을 모으는지, 모으는 주체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지만 열왕기하 22장 20절 “내가(YHWH) 너를 너의 조상(אֲבִית) 곁으로 모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참조한다면, 주체는 YHWH임을 알 수 있다. Annette Krüger, “Auf dem Weg ‘zu den Vätern’. Zur Tradition der alttestamentlichen Sterbenotizen,”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139의 주장처럼, 이러한 죽음을 표현하는 관용구를 통해 YHWH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열조’라는 단어이다. 왜냐하면, 죽은 후 ‘열조에 모인다는 것’은 ‘죽은 자가 자신의 열조의 땅에 매장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신들의 조상과 연결된다’는 자신의 혈연적 정체성 형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다.²⁷⁾ 무엇보다 페리트(Lothar Perlt)는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온전히 삶을 마무리했음을 뜻하는 ‘가치개념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ein bildwort für einen Wertbegriff)’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Schöpfungsordnung)’에 대한 순응,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Gottesgeborgenheit)’ 그리고 ‘공동체의 연속성 안에서 평안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두 번째 죽음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은 소위 ‘신명기 역사서’ 속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죽음²⁹⁾을 묘사할 때 ‘조상들과 함께 눕다’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조상들’은 다윗을 제외하고 선왕(先王)들을 뜻한다. 한 가지 흥미

27) Karel van der Toorn, “Ein verborgenes Erbe. Totenkult im frühen Israel,” *Theologischen Quartalschrift* 177(1997), 108. 또한 Annette Krüger, “Auf dem Weg ‘zu den Vätern’. Zur Tradition der alttestamentlichen Sterbenotizen,” 139는 이러한 표현이 아브라함(창 25:8), 이스마엘(창 25:17), 이삭(창 35:29), 야곱(창 49:29), 야곱(창 49:33), 아론(민 20:24, 26) 그리고 모세(민 27:13; 31:2; 신 32:50)과 같은 이스라엘 초기 인물의 죽음에 관하여 소위 ‘제사장 문서’ 속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죽음의 표현은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다에서 온 젊은 예언자가 베엘의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에 속아 YHWH의 명령을 어긴 후,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왕상 13: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대로 열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YHWH의 심판을 의미한다.

28) Lothar Perlt, “Der Tod im Alten Testament,” in *Allein mit dem Wort. Theologische Studien. Zum 65. Geburtstag herausgegeben von Hermann Spieckerman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209-210.

29) 다윗(왕상 2:10), 솔로몬(왕상 11:43), 여로보암 1세(왕상 14:20), 르호보암(왕상 14:3), 아비야(왕상 15:8) 등 총 23명의 왕의 죽음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로운 사실은 '죽음'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 'מות'가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⁰⁾

또한 구약은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으로 죽음을 엄격히 구분한다.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다하고 숨을 거두고 조상들 곁으로 갔다'(예를 들면, 창 25:8; 35:29)는 표현 또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었다'(창 15:15; 욥 42:17 등)와 같은 표현은 삶의 번영을 누리고 '장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이상적인 삶이자 대표적인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장수의 기준은 소위 '모세의 시편'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70~80세로 보았을 수 있다. '장수' 이외에도 스프롱크(Klaas Spronk)는 '평화로운 임종', 열조와 함께 묻히는 것을 통한 '혈연적 연속성의 확보' 그리고 약속받은 '자기 땅에 매장'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형적인 '좋은 죽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와 함께 스프롱크는 '나쁜 죽음'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폭력적인 죽음', 여인의 손에 죽는 '수치스러운 죽음', '후손 없는 상태에서의 죽음', 시신이 조상과 함께 묻히지 못하는 죽음, 무엇보다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한 '조기 사망'이다. 왜냐하면, 전쟁, 질병 그리고 재앙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YHWH께서 분명한 이유(죄악 또는 불신앙 등)가 있었기에 이들은 이른 시기에

30) Jan Christian Gertz, "Das Zerschneiden des Bandes zwischen den Lebenden und den Toten in der deuteronomisch-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561-562는 이러한 표현 속에 'מות'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고대 근동 문화의 사자숭배(死者崇拜)를 배제하고 'YHWH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명기 역사가들의 분명한 신학적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31) Klaas Spronk, "Good death and bad death in ancient Israel according to biblical lore," *Social Science & Medicine* 58(2004), 989-992. 그가 제시한 '좋은 죽음'을 맞이한 대표적인 인물은 175세까지 살며, 아내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안치되고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의 번성을 눈으로 보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한 아브라함이었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³²⁾ 여기에 로이엔베르거(Martin Leuenberger)는 본 연구의 주제인 ‘자살’ 역시 이러한 조기 사망의 한 요인으로 간주하며, 자살을 포함한 모든 조기 사망을 예외 없이 ‘나쁜 죽음’이자 ‘인간 존재의 결정적인 종교적 실패(definitive religiöse Scheitern der menschlichen Existenz)’로 평가하였다.³³⁾

2. 자살 용어의 부재

지혜 문학 몇몇 구절 속에서 ‘자살’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잠언 8장 36절(새번역)은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다. 비록 이 구절이 현대적 의미의 자살을 직접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지혜)를 거부하는 행위가 곧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살이라는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다름없음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라는 욥의 한탄이 언급된 욥기 7장 15절 역시 자신이 처한 비참한 삶을 비판하여 자살을 고려하는 구절로 생각할 수 있다.³⁴⁾

32) 위의 논문, 988.992-994.

33) Martin Leuenberger, “Das Problem des vorzeitigen Todes in der israelitischen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e,”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153-156.

34) 그러나 Christian Frevel, “Dann wär’ ich nicht mehr da. Der Todeswunsch Ijobs als Element der Klagerhetorik,”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39. 이외에도 Marvin H. Pope, *Job: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 (Garden City: Doubleday 1973²), 62, David J. A. Clines, *Job 1-20*, 한영성 역, 『욥기 1-20』 (서울: 솔로몬, 2006), 327 그리고 Jürgen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Hiob 1-20* (Neukirchen-Vluyn:

그러나 구약학 관점에서 ‘자살’을 연구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난제는 현대적 의미의 ‘자살’을 지칭하는 독립된 히브리어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⁵⁾ 단지 ‘죽음’ 또는 ‘죽는다’를 뜻하는 ‘מוֹת’나 ‘살인하다’ 또는 ‘죽이다’를 뜻하는 ‘רָצַח’와 같은 여러 동사를 사용해서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뿐이다. (앞으로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언급하겠지만,) 아마도 구약 시대에는 ‘자살’을 별도의 특별한 율법적 또는 윤리적 범죄 중 하나로 분류하기보다, 하나의 사건 속에서 인간이 맞이하는 다양한 죽음의 형태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자살을 하나의 죽음의 방식 중 하나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약의 자살을 살펴본 대표적인 학자가 디트리히(Jan Dietrich)이다. 그는 (고대 근동을 포함한) 구약의 자살 사건을 의학적 질병, 사회적 병리 현상 또는 종교적 죄와 같은 현대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Sinngeschichten)’³⁶⁾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자살한 개인이 직면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목표 지향적이며 의도적인 행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자살’ 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Neukirchener Verlag, 2007³⁾, 162-163과 같은 많은 주석자들은 이러한 탄식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바람일 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 35) Ernest Klein,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The University of Haifa, 1987), 1.17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처벌하다/멸망하다’를 뜻하는 동사 ‘아바드(אָבַד)’의 히트파엘(Hitpa'el) 형태의 원형인 לְהִתְאַבֵּד가 ‘자살하다’를, 여성 명사 형태인 הִתְאַבְּרָה는 ‘자살’을 의미한다.
- 36)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im Alten Testament und Alten Orient, Eskapistische, aggressive und oblativ Selbsttötungen,”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177-178.

다.³⁷⁾ 첫째는 전쟁이나 지위 상실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탈출적 자살(Eskapistische Selbsttötungen)’³⁸⁾이며, 둘째는 자신의 자살이 타인이나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공격적 자살(Aggressive Selbsttötungen)’ 그리고 마지막 타인의 이익이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적 자살(Oblative Selbsttötungen)’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살을 미화하지 않는다.³⁹⁾ 이러한 디트리히의 자살에 대한 신학적 평가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약 인물들(아비멜렉, 삼손, 사울과 그의 무기 담당 병사, 아히도벨 그리고 시므리)의 고통을 다음과 같은 4 종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조명하고, 교리적 정죄를 넘어서 깊은 신학적 성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V. 구약의 자살 사례 연구와 신학적 의미

1. 수치스러운 죽음 회피: 사울과 그의 병기 든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생을 마감하는 사울 왕의 최후는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 두 곳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술된다. 전자는 블레셋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울은 할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포되어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기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병사가 이를 거부하자,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려 자살한다(삼상 31:4-5). 이에 사울의 병사 역시

37) 이에 관하여는 위의 논문, 178-194를 참조하라.

38) Jean Baechler, *Tod durch eigene Hand. Eine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über den Selbstmord* (Frankfurt am Main: Ullstein, 1981), 61는 이미 이러한 의미의 자살에 관하여 이 언급하였다.

39) 이와 달리 Arthur J. Droge, “Suicide,” 228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살은 영웅적인 행위로 여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their suicides are scarcely commented on, leading one to conclude that in **ancient Israel the act of suicide was regarded as something natural and perhaps heroic.**”

사울처럼 자신의 칼 위에 얹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달리, 후자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중상을 입고 활 쏘는 자에게 쫓기며 창에 기대어 고통 속에 서 있었던 사울이 아말렉 소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청하자 그를 죽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삼하 1:6-10).⁴⁰⁾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한 주석가들의 의견은 서로 다른 전승의 편집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통시적 해석'과 두 기록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하나의 문학적 통일체로 해석하는 '공시적 해석'으로 나뉜다.⁴¹⁾ '공시적 해석' 중 사울의 죽음에 대한 주석에 초점을 맞춰 해석한 바-에프라트(Shimon Bar-Efrat)의 주장은 흥미롭다. 하나의 문학적 통일체로 해석한 그는 사울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으며, 이후 아말렉 소년이 그를 "finishing off", 즉 '마무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사무엘하 1장 9.10.16절에서 사용된 '죽다'를 뜻하는 동사 'מות'가 '히필(Hiphil'il)' 형태가 아닌 '폴엘(Polel)' 형태인 'מוֹתֵת'(모테트)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⁴²⁾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동사 형태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맺돌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당한 아비멜렉이 그의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삿 9:54)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40) 이어지는 본문에서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다는 죄목하에 처형한다. 이를 통해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것과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신성함을 지켰다는 정치적 그리고 신학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의 지지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관하여는 David M. Gunn, "Narrative Patterns and Oral Traditions in Judges and Samuel," *Vetus Testamentum* 24(1974), 295, Robert Alter,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W. Norton, 1999), 197-198 그리고 Pamela Tamarkin Reis, "Killing the messenger. David's policy or politic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2006), 167-168.177을 참고할 수 있다.

41) 위의 논문, 170-171에서 '통시적 해석'과 '공시적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42) 일반적으로 '히필' 형태는 단순한 결과나 일회성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면, '폴엘'은 어떤 행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때 사용되는 동사 형태이다.

때(삼상 17:51)와 마찬가지로 치명상을 입은 사울을 확실하게 죽이는 ‘확인 사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⁴³⁾ 또한 구약에서 단 한 번 사무엘하 1장 9절에서만 언급되기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사울의 고통을 표현한 ‘샤바쯔(שָׁבַט)’라는 단어를 번역한 주요 번역본⁴⁴⁾을 통해 바-에프라트는 사울은 ‘치명상을 입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힘조차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태’에서 아말렉 소년의 도움으로 “finishing off”, 즉 죽음을 맞이했다고 주장하였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자살⁴⁵⁾ 동기는 확인할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인들이 와서 찌르고 모욕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즉,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 즉 ‘사울이 스스로 삶을 마무리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사울은 예외로 한다’는 미드라쉬의 해석은 의미가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중상당한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사울의 자살은 예외적인 정당성을 지닌 결단으로 정당

43) Shimon Bar-Efrat, “The Death of King Saul: Suicide or Murder?, Diachronic and Synchronic Interpretations of ISam 31-IIISam 1,” in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75-277: “That מוֹת does not mean ‘to kill’ but ‘to finish off(275)’”.

44)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73는 헬라이어 칠십인역은 ‘무서운 어둠’, 라틴어 불가타역은 ‘고뇌’, 시리아 페쉬타역은 ‘현기증’ 그리고 아람어 타르굼역은 ‘떨림’의 의미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울의 절망적인 상태를 언급하였다.

45) John Mauchline, *1 and 2 Samuel* (London: Oliphants, 1971), 197의 주장처럼 사울의 죽음을 아말렉 소년에 의한 ‘양심적, 인도적, 명예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살인’ 또는 지금의 관점에서 ‘안락사로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와 같은 구별 없이 모든 사례를 ‘자살’로 정의하고자 한다. 비교;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Jewish Bible Quarterly* 37(2009), 167, 미주 2.

하다는 것이다.⁴⁶⁾

사울의 죽음은 역대상 10장 4-5, 13-14절을 통해 YHWH에 대한 배신과 불순종에 따른 심판으로 재해석되지만, 이는 그의 삶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일 뿐 자살 행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정죄는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울이 죽은 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의 주검을 화장한 후 야베스에서 매장하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도했다는 사실(삼상 31:11-13; 비교 삼하 2:5)과 다윗 역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고 애도했다는 사실(삼하 1:17-27)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울의 자살을 정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⁴⁷⁾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신학적 지표 사울의 주검이 '조상의 묘설'에 안치되는 사실이다(삼하 21:4).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사후에도 언약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는 YHWH의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사실과 사울이 조상의 묘에 장사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사울의 자살은 블레셋에 의한 수치를 피하기 위한 도피적 행위이기에 부정적⁴⁸⁾으로도 그렇다고 영웅적인 행위로도 평가하지 않고 객관적⁴⁹⁾으로만 설명하고 있

46) 강라미 역, 『미드라쉬 13 (사무엘상 미드라쉬)』 (서울: 한국가능성개발원, 1999), 384-386.

47) 비교 James T. Clemons,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uicide?*, 29-32;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167.

48) 예를 들면, Thomas R. Preston, "The Heroism of Saul. Patterns of Meaning in the Narrative of The Early Kingship,"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1982), 37-38. 김중은, "자살문제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접근," 「장신논단」 38(2010), 21-22도 사울과 함께 그의 세 아들이 죽고(삼상 31:6) 가문이 몰락한 것은 사울의 자살에 대한 YHWH의 심판이 반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49)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67. 그러나 Ulrich Berges, *Die Verwerfung Sauls. Eine thematische Untersuchung*. (Würzburg: Echter, 1989), 255-258와 Jacob L. Wright, "Making a Name for Oneself. Martial Valor, Heroic Death, and Procreation in the Hebrew Bibl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2011), 149-150처럼 그의 자살을 영웅적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후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사울의 자살 직후 뒤따른 병기 든 자의 자살 역시 신학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의 죽음에 관해 구약은 침묵한다. 이러한 침묵은 아마도 전쟁 중 주군의 운명과 같은 행위로 비난이 아닌 주군에 대한 충성과 신의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는 ‘동반 자살’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다윗의 핵심 신하이자, 그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만큼(삼하 16:23)’ 독보적인 지혜를 지닌 ‘진정한 지략가’⁵⁰⁾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지략’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군 편에서 다윗을 즉시 공격하라는 자신의 결정적인 전략이 거부되고 경쟁자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자, 그는 지략가로서의 자신의 기능과 영향력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직감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경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공격 자아의 종말, 즉 지략가로서의 정체성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이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⁵²⁾ 죽는 선택을 감행하고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삼하 17:23).

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50)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262.

51) 비교: Hans Joachim Stoebe, *Das erste Buch Samuelis. Mit einer Zeittafel von Alfred Jeps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389-390와 Fritz Stol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262-263.

52) Marvin H. Pope, *Job*, 62는 아히도벨의 자살만이 구약 내 온전한 의미의 유일한 자살

이러한 아히도벨의 사례에서 다음의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자살은 결코 충동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집 안을 정리하고 자신이 죽을 장소인 고향 집을 직접 선택할 정도로 매우 침착하고 계획적인 '지략가다운 자살'⁵³⁾이자 '지략가로서의 명예와 가문을 지키기 위한 자살'⁵⁴⁾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아히도벨의 자살에 대해 어떠한 명시적인 신학적 비난이나 도덕적 정죄 없이, 단지 그가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의 자살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축복을 박탈당할 정도의 죄악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그의 명예가 최종적으로 보존되었음을 시사한다.⁵⁵⁾ 셋째, YHWH의 섭리⁵⁶⁾와 아히도벨의 자살이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즉 그의 자살은 표면적으로는 지략가로서의 실패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율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정작 YHWH가 그의 계획을 막았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YHWH가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삼하 17:14, 23). 김남일은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밤을 지내는 것'을 금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근거로 교살(絞殺)을 통한 아히도벨의 자살에

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David Daube, "Death as a Release in the Bible," *Vetus Testamentum* 5(1962), 88는 자살이 아닌 '실패한 지략가'인 자신에 대한 '자기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53)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164-165는 아히도벨은 추후 있을 수 있는 다윗의 처벌 방지 및 가족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죽음의 방식은 지략가다운 선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54)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153.

55) 예를 들면, Henry Preserved Smit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Edinburgh: T. & T. Clark, 1951⁴), 355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Biblical writers found it especially abhorrent, Ahithophel was not refused burial in the sepulchre of his father."

56) 예를 들면, Hans Wilhelm Hertzberg, *Die Samuelbüch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⁴), 290-291는 아히도벨의 자살은 '차가운 이성에 기반한 지략가다운 선택'이자 '다윗을 구원하시려는 YHWH의 섭리'와 연결되었기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행위로 평가하였지만,⁵⁷⁾ YHWH의 개입과 맞물린 아히도벨의 선택을 신학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결국, 그의 자살은 지략가로서의 정체성 상실에 대한 실망감과 사회적 명예의 상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퇴장이었기에, 이에 대한 종교적 심판을 확인할 수 없다.

3. 사명 완수와 목표 지향적인 자기 파괴: 삼손

구약 속 사사 삼손은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한 순간에 몰살시킨 전쟁 영웅으로 묘사되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잃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⁵⁸⁾ 다곤 신전에서 옥중 멧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채주를 부리는(삿 16:21, 25) 삼손의 모습은 단순히 신체적 훼손을 넘어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이는 피해자 삼손의 무능력함과 권위 상실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힘을 얻은 삼손은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삿 16:28-30).

이 과정 속에서 갈파즈-펠러(Pnina Galpaz-Feller)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채주를 부렸다’는 표현에 사용된 ‘פרע’에 주목하였다. 구약

57) 김남일, “구약성서가 말하는 자살,” 『복음과 선교』 11(2009), 9, 11.

58) 이러한 삼손의 운명은 두 눈이 뽑히고 두 뺨 사슬에 묶여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왕하 25:7)의 운명과 유사하다. Saul M. Olyan, *Disability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ing Mental and Physical Differ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43는 이와 같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육체적으로 영구적인 훼손 목적은 피해자의 무능력함과 권위 상실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에서 일반적으로 여자가 성적으로 연관된 행위를 할 때(창 26:8; 39:14,17) 또는 어린아이를 놀릴 때(창 21:9) 주로 사용된 이 단어를 전쟁 용사 삼손에게 의도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삼손은 죽이기 전에 이미 영웅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사회적 죽음' 상태에 처했다는 것이다.⁵⁹⁾ 디트리히는 더 나아가서 “강간하다/성적으로 비하하다”(비교 창 34:2; 신 21:14; 22:24,29; 삿 19:24;20:5)와 같이 성적 행위와 연관된 ‘ענה’를 통해 삼손을 ‘굴복시키려 했다’는 사실(5절)과 삼손이 감옥에서 전형적인 여자들의 노동인 ‘맷돌질’을 했다는 사실(21절)에 주목하였다.⁶⁰⁾ 이를 통해 삼손은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성화를 통한 사회적 죽음(ein sozialer Tod durch Feminisierung)’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다. 자살을 통한 삼손의 죽음⁶¹⁾의 과정 속에서도 두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살하기에 앞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복수를 위해서 YHWH께 도움을 청했

59) Pnina Galpaz-Feller, *Samson: The Hero and the Man. The Story of Samson (Judges 13-16)* (Bern: Peter Lang, 2006), 226.

60)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224-225. 이 외에도 Renate Jost, *Gender, Sexualität und Macht in der Anthropologie des Richterbuches* (Stuttgart: Kohlhammer 2006), 250와 Susanne Gillmayr-Bucher, *Erzählte Welten im Richterbuch. Narratologische Aspekte eines polyfonen Diskurses* (Leiden: Brill, 2013), 178을 참고하라.

61) 김중은, “자살문제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접근,” 20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삿 19:30상)”라는 표현은 “결코 자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죽어도 좋다는 결연한 의지”로, J. Cheryl Exum / J. William Whedbee, “Isaac, Samson, and Saul: Reflections on the Comic and Tragic Visions,” *Semeia* 32(1984), 22-23과 Rente Jost, “Der Gott der Liebe – der Gott der Rache oder: Simsons ‘Rachegebet,’” in *Von der Wurzel Getragen. Christlich-Feministische Exegese in Auseinandersetzung mit Antijudaismus* (Leiden: Brill, 1995), 109는 인간의 생사(生死)는 YHWH의 손에 달려있으며,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닌 YHWH가 주신 힘으로 블레셋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삼손은 결코 자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고,⁶²⁾ 자살을 통해 삼손은 살아 있는 동안에 죽인 자보다 더 많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다(삿 16:28-30). 무엇보다 YHWH의 도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었기에, 그의 자살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³⁾ 둘째, 삼손 역시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혔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상과 함께 묻힌다’는 것은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죽음⁶⁴⁾이 아니라, YHWH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여전히 조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명예롭게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⁶⁵⁾

일부 학자들은 삼손의 자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미화시키는 해석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⁶⁶⁾ 삼손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죽음을 부정적으로 정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신에 삼손의 사례는 극한의 수치와 사회적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림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이자, 단순히 절망의 상태에서 도피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62) ‘YHWH여 구하옵나니 ... 하나님여 구하옵나니(2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삼손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자살로 이룬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Rüdiger Bartelmus, *Heroentum in Israel und seine Umwelt: Eine traditionsge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 Gen. 6, 1-4 und verwandten Texten im Alten Testament und der altorientalischen Literatur*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9), 107은 삼손 스스로가 언제 어디에서 죽을지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하였다.

63)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159-161;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im Alten Testament und Alten Orient. Eskapistische, aggressive und oblativ Selbsttötungen,” 186-187.

64) 예를 들면, Arthur J. Droge / James D. Tabor, *A Noble Death: Suicide and Martyrdom Among Christians and Jews in Antiquity*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2), 55. 그러나 Jean Baechler, *Tod durch eigene Hand*, 62는 자살을 영웅적 행위가 아닌 ‘범죄’로 평가하였다.

65) Annette Krüger, “Auf dem Weg ‘zu den Vätern’. Zur Tradition der alttestamentlichen Sterbenotizen,” 139-140.

66) 예를 들면, 김남일, “구약성서가 말하는 자살,” 8.

파괴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원수 블레셋에게 복수하려는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자기 파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악행에 대한 YHWH의 심판과 자기 파괴: 아비멜렉과 시므리

먼저, 아비멜렉의 사례이다(삿 9장). 그는 외가 세겔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다.⁶⁷⁾ 그러나 3년 후 세겔 사람들이 배반하자 1000여 명의 남녀를 죽이고 세겔을 잔인하게 멸망시켰지만, 데베스 망대에 서 있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심한 부상을 당한다. 그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피하려고 자기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53-55절). 이러한 죽음을 본 연구에서는 ‘자살’이라는 큰 틀에서 정의했지만, 현대 사회의 첨예한 윤리적 관점에서 ‘살인’, ‘조력 자살’⁶⁸⁾ 또는 ‘안락사’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독특한 사례이다.

아비멜렉의 죽음이 갖는 신학적 의미는 그의 잔혹한 악행에 대한 YHWH의 심판의 성격과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평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67) Trent C. Butler, *Judges*, 조호진 역, 『사사기』 (서울: 솔로몬, 2011), 576는 이러한 아비멜렉을 “불법적인,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불법적인 전사”로 평가했다.

68) Stephen Duckett, “The Role of Abimelech’s Arms Bearer. A Biblical Acceptance of Assisted Dying?,”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6/1(2022), 94-100는 아비멜렉의 사례를 통해서 ‘조력 자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맷돌에 맞아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아비멜렉은 죽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났다 하더라도 아비멜렉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기 든 자의 손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장면을 기록한 것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선택이었으며 이를 현대적 사고에서 ‘조력 사망(자살)’의 성서학적 근거로 삼을 타당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조력 자살’의 또 다른 사례인 사무엘하 1장에서 치명상을 입은 사울을 죽인 아말렉 소년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약은 ‘조력 자살’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해석의 근거도 제공한다.

몸부림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과 응보의 결과가 아비멜렉의 죽음 방식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돌(바위) 위에서 70명의 형제를 살육했던 그의 행위는 또 다른 돌(맷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의 문학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인 사무엘하 11장 21절에서는 병기 든 자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자’로 언급함으로써 YHWH의 심판이 그의 죽음으로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치욕스러운 사회적 평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아비멜렉이 죽음의 순간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스러운 평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전사가 여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극도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병기 든 자의 칼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했었다.⁶⁹⁾

이처럼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 이전에 행했던 그의 악행에 대해서 YHWH는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그의 죽음 방식이나, 그를 죽인 병사도 그리고 맷돌을 던진 여인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도덕적 그리고 신학적 비난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여인의 행위나 병사의 행위 모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69) 기드온에 포로로 잡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칼을 뽑지 못하는 기드온의 만이들 예뻐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기드온에게 ‘사내 대장부답게 직접 자신들을 죽이려고 요청하는 사실(삿 8:20-21)을 통해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닌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고 했음을 알 수 있다.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81 역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아비멜렉의 죽음을 평가한다.

구약의 6명의 자살자 중 마지막 인물인 시므리의 죽음은 다른 사례와 달리 ‘자기 파괴’의 전형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지휘관 시므리는 바이사 가문의 엘라 왕을 살해하고 ‘디르사’에서 왕위에 올랐지만, 백성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추대된 오므리가 디르사를 에워싸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불타 죽는다(왕상 16:18-20). 예언자 예후의 선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이사 가문에 대한 YHWH의 심판으로 시므리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왕상 16:13), 단 7일 동안의 짧은 재위 기간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⁷⁰⁾(왕상 16:19)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약은 그가 디르사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18절) 분신 자살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왕궁이 오므리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자신이 오므리 손에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시므리가 분신 자살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다.⁷¹⁾ 그러나 자신의 불행한 상황과 완전한 실패를 직시한 시므리가 내린 전형적인 도피적 행위임은 분명하다.⁷²⁾ 이러한 시므리의 죽음 방식에 대한 브랜치(Richard Gallaher Branch)⁷³⁾의 주장처럼, 그의 행위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넘어, 자신과 함께 권력의 상징인 왕궁을 동시에 파괴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70) 이와 달리 Volkmar Fritz, *Das erste Buch der Könige* (Zürich: TVZ, 1996), 158는 왕위 찬탈 시도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였다.

71) 비교;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166.

72) Jan Dietrich,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126-127: “Der Selbstmord wird im Falle Simris wie auch im Falle von Abimelech (Ri 9) und Saul (1 Sam 31) zwar selbst **nicht moralisch** abwertend beurteilt, aber als **dramatischer und erzählenswerter –sowie kulturell durchaus akzeptierter und nachvollziehbarer – eskapistischer Ausdruck** des eigenen vollständigen und endgültigen Scheiterns auf ganzer Linie bewertet.(127)”

73) Richard Gallaher Branch, “Zimri: slave or official? The strange story of Israel’s week-long, suicide king (1 Kings 16:8-20),” *Journal for Semitics* 16/2(2007), 385-386.

그를 “suicide bomber”, 즉 ‘자살 폭탄 테러범’과 유사한 성격의 행위로 정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므리의 행위를 자신의 업적이 후대에 기억되길 바라는 ‘영웅적인 종말’⁷⁴⁾이나 ‘허세를 부린 행동’⁷⁵⁾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므리의 분신 자살은 구약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와 연결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례와 같이 자살이라는 죽음의 선택 자체에는 거의 평가하지 않고,⁷⁶⁾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그 의도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⁷⁾ 그렇다고, 상실, 모욕, 복수, 절망 등을 피하려고 선택한 시므리의 자살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V. 나가는 말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프란츠 카프카)”

지금까지 구약학에서 바라보는 ‘자살’에 관한 신학적 평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살을 용인하지도 그렇다고 정죄하지도 않는 중립적 해석이다.⁷⁸⁾ 둘째,

74) Mordechai Cogan, *1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Doubleday, 2008), 413.

75) Simon J. DeVries, *1 Kings*, 김병하 역, 『열왕기상』 (서울: 솔로몬, 2003), 447.

76) 후대에 시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의 죽음 방식에는 무관심지만, 주인(왕)을 살해한 부정적인 인물로 기억되었다는 사실(왕하 9:3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7) Joachim Lauer, “Suizid,” (erstellt: August 2012), accessed 10 February 2026 from <https://www.die-bibel.de/ressourcen/wiblex/altes-testament/suizid-2>.

78) 예를 들면, Lawrence E. Holst, “Do we Need more Help in Managing our Death? A Look at Physician-Assisted Suicide,”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47(1993), 341; James S. Anderson, *Monotheism and Yahweh’s Appropriation of Baal* (New York: T & T Clark, 2015), 76-77.

구약의 어떤 본문에서도 자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중 부정의 관점이다.⁷⁹⁾ 셋째, 구체적인 주석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자살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부정적인 반대로 해석하는 입장이다.⁸⁰⁾ 넷째,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지지의 견해이다.⁸¹⁾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구약 내에 자살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나 부정적 신학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인용되는 십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역시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기초할 뿐,⁸²⁾ 본문이 자살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거나 그리고 반대로 ‘자살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율법이 구약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자살을 묵인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모두 지금까지 구약의 사례 연구에서 언급된 인물들은 (사울의 병기 든 자를 제외하고)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높은 인물들이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자살은 악인에게 어울리는 결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⁸³⁾ 그러나 죽음의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자신들

79) 예를 들면, Leon D. Hankoff, “Judaic Origins of the Suicide Prohibition,” in *Suicide: Theory and Clinical Aspects* (Littleton: PSG, 1979), 17-20, Jarmo Tarkki, “Assisted Suicide: Do We Own Our Bodies?,” *Dialog* 43(2004), 108-109.

80) Cynthia B. Cohen, “Christian perspectives on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the Anglican tradition,”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24 (1996), 370-372, Thomas Schirrmacher, “Medical Killing. An Evangelical Perspective,” *Christian Bioethics* 9(2003), 232-234.

81) Brian M. Barraclough, “The Bible suicid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6(1992), 68-69, Yael Shemesh, “Suicide in the Bible,” 167 등.

82) 이와 달리 Jiří Moskala, “‘You Shall not Kill’ or ‘You Shall not Murder’? The Meaning of Ratsakh in the Sixth Commandment,” *Reflections* 67(2019), 5는 제6계명 속에는 ‘타인 살해’, ‘자살’ 그리고 ‘낙태’라는 세 가지 생명 경시에 모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83) 예를 들면, Anthony Fisher, *Catholic Bioethics for a New Millennium* (Cambridge:

이 이전에 행한 악행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선택한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종교적 또는 윤리적 정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구약은 자살을 단순한 ‘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다.⁸⁴⁾ 예를 들면, 아비멜렉은 그의 잔혹한 가족 살인에 대한 죄를 심판하지만,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삼손 역시 복수와 민족 구원의 맥락하에서 묘사되었을 뿐, 그가 선택한 죽음의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울, 삼손 그리고 아히도벨이 조상의 묘실에 안치되고, 사울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애도와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은 자살에 대한 결정적인 신학적 평가의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여전히 혈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들이 선택한 죽음의 방법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축복에서 제외될 만한 죄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현대의 단정적 정죄는 구약의 시선이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교회사 속에서 제도적,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로 왜곡된 해석일 가능성이 크다.⁸⁵⁾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56-260, Michael J. Lowis, *Euthanasia, Suicide, and Despair: Can the Bible Help?: Guidance When Faced with Ethical Dilemmas*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5), 68-70.

- 84) 무엇보다 James T. Clemons,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uicide?*, 23-40에서 구약의 6명의 사례(아비멜렉, 삼손, 사울과 그의 병기 든 자, 아히도벨 그리고 시므리)를 차례로 분석한 이후, 이들 사례 속에서 현대적 개념의 자살에 대해 교리적 정죄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단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인물들의 당시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살(과 조력 자살)이라는 죽음의 방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죽음에 담긴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의미에 주목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William E. Stempsey, “Laying down one’s life for oneself,” *Christian bioethics* 4(1998), 206-208.

- 85) James T. Clemons,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uicide?*, 79-81.

또한 내세에 대한 보상보다 현세의 삶에 초점을 맞춘 고대 이스라엘의 죽음관⁸⁶⁾과 장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종교관에서 자살은 YHWH께서 주신 현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나쁜 죽음’의 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은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⁸⁷⁾ 분명 자살은 나쁜 죽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살이 YHWH의 섭리와 계획과 연관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유일한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시다”라는 교회의 신앙 고백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 하에 자살을 인간의 권한 밖 행위로 보아 죄악시하는 이들의 입장도 여전히 견고하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칙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이들은 동일한 신학적 잣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언급한 구약의 자살 사례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생명 윤리 문제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로 인한 이른 죽음과 평균수명이 짧았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와 달리,⁸⁸⁾ 우리는 인위적으로 생

86)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숭배 및 사자숭배, 사후 세계와 부활 신앙에 관하여는 다음의 신학사전 Dagmar Kühn, “Totenkult (Israel),” (erstellt: November 2011), accessed 18 May 2026 from <https://www.die-bibel.de/wibilex>, Peter Riede, “Jenseits vorstellungen (AT),” (erstellt: August 2014), accessed 1 April 2026 from <https://www.die-bibel.de/wibilex> 그리고 Kathrin Liess, “Auferstehung (AT),” (erstellt: Dezember 2005), accessed 15 April 2026 from <https://www.die-bibel.de/wibilex>을 참고할 수 있다.

87) Klaas Spronk, “Good death and bad death in ancient Israel according to biblical lore,” 993-995.

88) 예를 들면, Walter Dietrich / Samuel Vollenweider, “Tod II. Altes Testament und Neues Testament,”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33 (Berlin: Walter de Gruyter,

명 연장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살’이라는 한 용어 속에서 해석하였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 또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그리고 ‘안락사(Euthanasia)’에 대한 논의⁸⁹⁾도 좀 더 자세히 세부화하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002), 582는 평균 수명으로 약 30세를, Erhard S. Gerstenberger, “Lebenslauf und Lebensphasen im Alten Testament, ‘... dass wir leben und nicht sterben’ (1. Mose 42, 2),” *Der evangelische Erzieher* 42(1990), 254-256는 약 40세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89) 이러한 주제에 대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찬·반 또는 일부 허용과 같은 다양한 견해에 관하여는 Duckett, “The Role of Abimelech’s Arms Bearer. A Biblical Acceptance of Assisted Dying?,” 93-94와 이곳에서 언급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남일, “구약성서가 말하는 자살,” 『복음과 선교』 11(2009), 1-24.
- 김중은, “자살문제에 대한 성경적·신학적 접근,” 『장신논단』 38(2010), 11-40.
- 김현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에서 나타난 영혼 돌봄에 대한 고찰,” 『통섭인문학』 1(2022), 1-21.
- 유경동, “안락사와 종교적 관점의 생명윤리,” 『한국신학논총』 114(2019), 363-396.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정확한 수치와 통계로 보는 신앙 양극화 시대 2025년 한국 교회 전망과 전략』, 서울: 규장, 2024.
- 강라미 역, 『미드라쉬 13 (사무엘상 미드라쉬)』, 서울: 한국가능성개발원, 1999.
- 최성환, 민현기, “철학적 문제로서의 죽음: 플라톤의 『파이돈』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61(2021), 27-62.
-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강상진 · 김재홍 · 이창우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도서출판 길, 2011.
- Augustine, *The City of God*. 조호연 · 김종흡 역, 『하나님의 도성』,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Butler, Trent C. *Judges*. 조호진 역, 『사사기』, 서울: 솔로몬, 2011.
- Clines, David J. A. *Job 1-20*. 한영성 역, 『욥기 1-20』, 서울: 솔로몬, 2006.
- DeVries, Simon J. *1 Kings*. 김병하 역, 『열왕기상』, 서울: 솔로몬, 2003.
- Durkheim, Elime. *Suicide. A Study in Sociology*. 황보종우 역, 『자살론』, 파주: 청아출판사, 2008.
- Platon, *Nomoi*. 박종현 역, 『플라톤의 법률. 부록: 미노스 · 에피노미스』, 파주: 서광사, 2009.
- _____. *Phaidon*. 전현상 역, 『파이돈』, 서울: 이제이북스, 2013.
- Alter, Robert, *The David Story. A Translation with Commentary of 1 and 2 Samuel*. New York: W.W. Norton, 1999.
- Anderson, James S. *Monotheism and Yahwe's Appropriation of Baal*. New York: T & T Clark, 2015.
- Baechler, Jean, *Tod durch eigene Hand. Eine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 über den Selbstmord*. Frankfurt am Main: Ullstein, 1981.

- Bar-Efrat, Shimon. "The Death of King Saul: Suicide or Murder?. Diachronic and Synchronic Interpretations of ISam 31-II Sam 1." In *David und Saul im Widerstreit - Diachronie und Synchronie im Wettstreit. Beiträge zur Auslegung des ersten Samuelbuch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4, 272-279.
- Barracough, Brian M. "The Bible suicides."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6(1992), 64-69,
- Bartelmus, Rüdiger. *Heroentum in Israel und seine Umwelt: Eine traditionsge-schichtliche Untersuchung zu Gen. 6, 1-4 und verwandten Texten im Alten Testament und der altorientalischen Literatur*.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9.
- Berges, Ulrich. *Die Verwerfung Sauls. Eine thematische Untersuchung*. Würzburg: Echter, 1989.
- Branch, Richard Gallaher. "Zimri: slave or official? The strange story of Israel's week-long, suicide king (1 Kings 16:8-20)." *Journal for Semitics* 16/2(2007), 378-391.
- Clemons, James T.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Suicid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Cogan, Mordechai. *1 King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arden City: Doubleday, 2008.
- Cohen, Cynthia B. "Christian perspectives on 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the Anglican tradition."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24(1996), 369-379.
- Cohn, Haim Hermann. "Suicide. In Jewish Law." In *Encyclopaedia Judaica*. Vol 19,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2007², 296.
- Daube, David. "Death as a Release in the Bible," *Vetus Testamentum* 5(1962), 82-104.
- Dietrich, Jan. "Der Tod von eigener Hand im Alten Testament und Alten Orient. Eskapistische, aggressive und oblativ Selbsttötungen."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177-198.

- _____. *Der Tod von eigener Hand Studien zum Suizid im Alten Testament, Alten Ägypten und Alten Orient*. Tübingen: Mohr Siebeck, 2016.
- Dietrich, Walter / Vollenweider, Samuel. “Tod II. Altes Testament und Neues Testament.” I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33. Berlin: Walter de Gruyter, 2002, 582-600.
- Droge, Arthur J. “Suicide.” I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I. New York: Doubleday, 1992, 225-231.
- Droge, Arthur J. / Tabor, James D. *A Noble Death: Suicide and Martyrdom Among Christians and Jews in Antiquity*.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2.
- Duckett, Stephen. “The Role of Abimelech’s Arms Bearer. A Biblical Acceptance of Assisted Dying?.”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36/1(2022), 93-111.
- Ebach, Jürgen. *Streiten mit Gott. Hiob, Teil 1: Hiob 1-20*.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7³.
- Exum, J. Cheryl / Whedbee, J. William. “Isaac, Samson, and Saul: Reflections on the Comic and Tragic Visions.” *Semeia* 32(1984), 5-40.
- Fisher, Anthony. *Catholic Bioethics for a New Millenni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Frevel, Christian. “Dann wär’ ich nicht mehr da. Der Todeswunsch Ijobs als Element der Klagerhetorik.”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h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25-41.
- Fritz, Volkmar. *Das erste Buch der Könige*. Zürich: TVZ, 1996.
- Galpaz-Feller, Pnina. *Samson: The Hero and the Man. The Story of Samson (Judges 13-16)*. Bern: Peter Lang, 2006.
- Gerstenberger, Erhard S. “Lebenslauf und Lebensphasen im Alten Testament. ‘... dass wir leben und nicht sterben’ (1. Mose 42, 2).” *Der evangelische Erzieher* 42(1990), 254-265.
- Gertz, Jan Christian. “Das Zerschneiden des Bandes zwischen den Lebenden und den Toten in der deuteronomisch-deuteronomistischen Literatur.”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

- 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547-563.
- Gillmayr-Bucher, Susanne. *Erzählte Welten im Richterbuch. Narratologische Aspekte eines polyfonen Diskurses*. Leiden: Brill, 2013.
- Gunn, David M. "Narrative Patterns and Oral Traditions in Judges and Samuel." *Vetus Testamentum* 24(1974), 286-317.
- Hankoff, Leon D. "Judaic Origins of the Suicide Prohibition." In *Suicide: Theory and Clinical Aspects*, Littleton: PSG, 1979, 3-20.
- Hertzberg, Hans Wilhelm. *Die Samuelbüch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8⁴.
- Holst, Lawrence E. "Do we Need more Help in Managing our Death? A Look at Physician-Assisted Suicide." *Journal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47(1993), 336-348.
- Jost, Renate. "Der Gott der Liebe - der Gott der Rache oder: Simsons 'Rachegebet'." In *Von der Wurzel Getragen. Christlich-Feministische Exegese in Auseinandersetzung mit Antijudaismus*. Leiden: Brill, 1995, 103-113.
- _____. *Gender, Sexualität und Macht in der Anthropologie des Richterbuches*. Stuttgart: Kohlhammer 2006.
- Klein, Ernest. *A Comprehensive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Hebrew Language*. Jerusalem: The University of Haifa, 1987.
- Krüger, Annette. "Auf dem Weg 'zu den Vätern'. Zur Tradition der alttestamentlichen Sterbenotizen."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und ikonograp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137-150.
- Kühn, Dagmar. "Totenkult (Israel)." (erstellt: November 2011), accessed 8 May 2026 from <https://www.die-bibel.de/wibilex>.
- Lauer, Joachim. "Suizid." (erstellt: August 2012), accessed 10 February 2026 from <https://www.die-bibel.de/ressourcen/wibilex/altes-testament/suizid-2>.
- Leuenberger, Martin. "Das Problem des vorzeitigen Todes in der israelitischen Religions- und Theologiegeschichte." In *Tod und Jenseits im Alten Israel und in seiner Umwelt theologische, religionsgeschichtliche, archäologische*

- und ikonografische Aspekte*. Tübingen: Mohr Siebeck, 2009, 151-176.
- Liess, Kathrin. "Auferstehung (AT)." (erstellt: Dezember 2005), accessed 15 April 2026 from <https://www.die-bibel.de/wibilex>.
- Lewis, Michael J. *Euthanasia, Suicide, and Despair: Can the Bible Help?: Guidance When Faced with Ethical Dilemmas*.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5.
- Mauchline, John. *1 and 2 Samuel*. London: Oliphants, 1971.
- Moskala, Jiří. "'You Shall not Kill' or 'You Shall not Murder'? The Meaning of Ratsakh in the Sixth Commandment." *Reflections* 67(2019), 1-7.
- Olyan, Saul M. *Disability in the Hebrew Bible. Interpreting Mental and Physical Differenc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Perlitt, Lothar. "Der Tod im Alten Testament." In *Allein mit dem Wort. Theologische Studien. Zum 65. Geburtstag herausgegeben von Hermann Spieckerman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206-221.
- Pfeiffer, Robert H. "A Pessimistic Dialogue Between Master and Servant."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³, 437-438.
- Pope, Marvin H. *Job: Introduction, Translation, and Commentar*. Garden City: Doubleday, 1973².
- Preston, Thomas R. "The Heroism of Saul. Patterns of Meaning in the Narrative of The Early Kingship."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1982), 27-46.
- Rabinowitz, Louis Isaac. "Suicide." In *Encyclopaedia Judaica*. Vol 19, Jerusalem: Keter Publishing House, 2007², 295-296.
- Reis, Pamela Tamarkin. "Killing the messenger. David's policy or politic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1(2006), 167-191.
- Riede, Peter. "Jenseitsvorstellungen (AT)." (erstellt: August 2014), accessed 1 April 2026 from <https://www.die-bibel.de/wibilex>.
- Schirmacher, Thomas. "Medical Killing. An Evangelical Perspective." *Christian Bioethics* 9(2003), 227-244.
- Shemesh, Yael. "Suicide in the Bible." *Jewish Bible Quarterly* 37(2009), 157-168.

- Smith, Henry Preserve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Books of Samuel*. Edinburgh: T. & T. Clark, 1951⁴.
- Spronk, Klaas. "Good death and bad death in ancient Israel according to biblical lore." *Social Science & Medicine* 58(2004), 987-995.
- Stempsey, William E. "Laying down one's life for oneself." *Christian bioethics* 4(1998), 202-224.
- Stoebe, Hans Joachim. *Das erste Buch Samuelis. Mit einer Zeittafel von Alfred Jeps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 Stolz, Fritz. *Das erste und zweite Buch Samuel*.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1.
- Tarkki, Jarmo. "Assisted Suicide: Do We Own Our Bodies?." *Dialog* 43(2004), 107-112.
- van der Toorn, Karel. "Ein verborgenes Erbe. Totenkult im frühen Israel." *Theologischen Quartalschrift* 177(1997), 105-120.
- Wilson, John A. "A Dispute over Suicide."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³, 405-407.
- Wright, Jacob L. "Making a Name for Oneself, Martial Valor, Heroic Death, and Procreation in the Hebrew Bibl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6(2011), 131-162.

논문투고일: 2026년 07월 15일

심사게시일: 2026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6년 08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급증하는 자살률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 속에서, '자살'을 교리적 틀 안에서 정죄해 온 한국 교회의 전통적 인식을 구약학 관점에서 재고하였다. 이를 위해 고대 근동 문화부터 그리스 철학,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그리고 에밀 뒤르케임의 사회학적 관점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구약 속 6명의 자살 사례를 주석 작업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구약은 자살을 지칭하는 독립된 용어 없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 하며, 이를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닌 정체성 상실에 따른 '사회적 죽음'이자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자들 대부분이 여전히 혈연 공동체의 일원으로 '조상과 함께' 안치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의 자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자살에 대한 현대 교회의 정죄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확립된 교회사적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

주제어: 자살, 정체성,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좋은 죽음, 사회적 죽음, 에밀 뒤르케임
